

최고의 생산관리 구축, 효율적인 생산

남기맞춘 최고의 품질 생산에 주력

김민철 / (주)용덕산업 생산부 차장

제 4회 한용교 포장인상 생
산·품질관리 부문의 영광
이 (주)용덕산업 김민철 차장
에게 돌아갔다.

김민철 차장은 “우선 신년
을 맞이하여 이렇게 큰상을 받
게 된 것에 대해 큰 영광입니다.
너무도 부족한 제가 이런 상을 받
게되어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를 계기로 더욱더 열심히 하여 포장
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 기대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라며 겸손한 인사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1985년 부산 동아대학교 공대 자원공학과
에 입학, 4년 내내 우수한 성적을 보였으며,
1992년 수석졸업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주)
대일산업에 입사하게 된 김 차장은 “그 당시
전공은 자원공학이었고, 부전공으로 산업공학
을 공부했던 저는 제가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를 경험하고자 이를 바탕으로 포장업계에
첫 발을 들여놓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주)대일산업에 입사하여 약 4년 동안 기본
기를 다진 후 1997년 4월 지금의 (주)용덕산



업에 입사하게 되었다는 김 차장
은 처음 (주)용덕산업의 창립을
위한 창업기획을 도맡아 했었
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제판
업 기술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
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레
이저를 사용할 당시 국내 레이저
의 기술적인 면, 운영방법, 특징 등의
문제를 놓고, 앞서 크게 발전한 일본의 관련
문헌이나 기술을 직접 접하고자 약 2개월 동안
일본을 오가며 연구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
한 (주)용덕산업의 설비 도입이 끝나고 첫 생
산품이 출고가 되었을 때 너무도 기뻛고, 감회
가 새로웠습니다”라며 회상했다.

이런 김 차장의 노력이 크게 작용하여 나타
난 결실로 (주)용덕산업은 1999년 벤처기업선
정과 중소기업청 경기중소기업인 기술상 수
상, 우수품질(EM)인증 산업자원부 기술표준
원에 이어 지난 2000년 신기술 유공기업 부분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약 8년이 넘게 제판업 분야만을 고집한 김
차장은 “제판업은 주문생산이다 보니 거래처

가 원하는 납기를 맞춰야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품질 생산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쫓기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객이 원하는 납기와 최고의 품질을 다 갖춘 (주)용덕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현재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3, 4월경 경기가 차차 풀리고, 상승기에 접어들면 호황을 누렸던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제조업이란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가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덧붙였다.

현재 김민철 차장은 (주)용덕산업에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는 내부적인 관리 뿐 아니라 외부적인 영업관리까지 혼자 도맡고 있다.

“지금은 품질관리 분야를 저 혼자 맡고 있어 여유가 없지만 앞으로 제 일을 분담해 함께 일할 사람이 생기면 이론적인 지식을 쌓고 싶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입·출고의 중간 과정인 관리가 얼마만큼 철저히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론적인 면을 실무에 적절히 적용시켜 최고의 품질을 납기에 맞춰 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며 피력했다.

김 차장은 현재 중소기업청 기술혁신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350선 저심도(13~16 μ)에서도 수성

잉크로 인쇄가 가능한 그라비아인쇄 금속롤의 제작을 목표로, 로봇을 이용한 전공정 자동무인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성잉크를 사용한 인쇄를 실현하여 식품류의 잔류유기용제 문제를 해결하고 잉크 소비량을 10~15% 절감시키며, 필름이 없는 데이터화 된 디지털 작업으로 고난도, 고품질의 제품생산 실현을 위한 연구과정이다.

“지금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4월경에 끝나면, 여기에 관한 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발 목적, 개발내용, 기대효과, 결과 등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수치화 된 데이터를 결과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기에 요즘은 6시50분쯤 출근하여 9시가 넘어서야 퇴근을 합니다”라며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김 차장은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더욱더 역력히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김 차장은 “포장업계가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더욱더 발전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이에 맞게 저도 최고의 생산관리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생산으로 기업에 본보기가 되어 (주)용덕산업과 포장산업, 나아가 국가에 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라며 피력했다.

기업의 목표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눈앞의 실질적인 이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멀리 보고 올바른 기업정신을 강조하는 김 차장의 모습에서 한층 더 투명한 포장산업을 예감할 수 있었다. ☐

권해진 기자